

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

2025. 1. 9.(목)

## 설 민생안정 및 성수품 물가안정에 총력 “배추, 무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, 할당관세 조기 시행, 불법유통 엄정대응”

- 설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26.5만톤 공급 및 역대 최대 900억원 할인지원 실시
- 배추, 무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및 할당관세 연장 추진
- 산지유통인·김치업체 등 출하 장려 및 사재기·담합 등 불법유통 엄정 대응

정부는 1.9(목) 10: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「2025년 설 명절대책」 등을 논의하였다.

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.5만톤 공급하고,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%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“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며, “특히 배추·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”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배추·무의 경우, 지난 김장철(11월 중순~12월 상순) 가을배추·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으나,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, 겨울배추,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·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.

\* 소비자가격(1.8일) : (배추)5,367원/포기, 평년비+52.1%, 전년비+69.7% (무)3,415원/개, 평년비+81.1%, 전년비+89.0%

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,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① 정부 비축,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.1만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 시장에 방출하고,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. 아울러 ② 배추 할당관세 적용(27%→0%, ~4월말)을 조기 추진하고,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(30%→0%, ~4월말)할 계획이다.

또한, ③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,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④ 필요시 사재기·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.

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⑤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.7%, 평년대비 2.5% 증가하고, 봄무는 전년대비 6.3%, 평년대비 2.9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이에 더해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·공급, 계약 재배 확대,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경임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연정은 (044-215-2771)
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	책임자	팀 장	박상우 (044-215-2931)
		담당자	사무관	신승헌 (044-215-2939)
	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신우식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욱 (044-201-2232)

